



전주대-목원대-가톨릭관동대,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전공자율선택 입학전형 모델 개발을 위해 목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비 교원의 다역량·다교과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 대학 교원양성기관의 인구구조 변화 및 AI 기반 디지털 교육 환경의 급속한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교원 양성(자율전공선택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전주대 사범대학 윤마병 학장, 목원대 사범대학 전영주 학장, 가톨릭관동대 김정아 입학처장 및 김지은 트리니티융합대학장을 비롯한 각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대학은 △사범대학 신입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역량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전공학부' 기반의 입학전형 모델을 공동 개발 △미래형 교원 양성 체계 연구 및 실천 모델 구축 △에비 교사 양성과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협력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소와 워크숍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0~21일 이틀간 대학본관 205호 세미나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1일차에는 '방사선을 이용한 양 기관간 연구협력 분야 소개'를 주제로 4개 섹션별 주제 발표와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2일차에는 전북 카카오프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견학 및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전시 관람, 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을 총괄한 전주대학교 이해원 산학(특임) 부총장은 "이 자리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전주대학교 간의 연구 및 인력 교류 협력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병엽 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의 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향후 양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연협력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은행, 군산에 'JB희망의 공부방 제191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군산백두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1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 개소한 백두산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홀로 집에 있는 아동들과 경제적 이유로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정서 및 심리적 지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용해 낡고 불편함이 큰 물품들의 교체 및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개인사물함, 급식실 식탁과 의자, TV장, 수납장, 블라인드 등도 전면 교체했다.

오현경 부행장은 "지역사회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환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장수꿈의학당·장수학당 진로캠프 성료

장수군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 및 군민회관에서 진행된 '장수꿈의학당·장수학당 겨울 방학 진로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캠프는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의 2025년 장수군 으뜸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중·고등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설계를 위한 계기와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훈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은 진로캠프를 통해 장수군의 아이들이 꿈을 찾고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19대 신임 안재원 회장 취임

“여성들의 역량 강화 도모·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최선 다 할것”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19대 신임 안재원 회장 취임과 함께 2025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 1,894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일 군산시 여성 교육장 대강당에서 열린 이취임 행사에서는 2년간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게 된 안재원 신임회장을 축하하고, 김성희 전임회장의 유공을 기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희 전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각 단체에서 보내 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안재원 신임회장은 “군산시 여성단체의 발전과 사회 기여를 목표로, 군산시 여성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여성들이 서로 지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안회장은 원불교 군산지구 여성회장을 맡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면서 여성 회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의 여권 신장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장수군, 100만 관광객 실현 위한 특강 ‘큰 호응’

니크닷컴퍼니 이은영 대표, ‘킬러콘텐츠와 공간혁신 트렌드’ 주제로 강연

장수군은 지난 19일 유니크닷컴퍼니 이은영 공동대표가 장수군을 방문해 '100만 관광객 실현을 위한 킬러콘텐츠와 공간혁신 트렌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장수군청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 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은영 대표는 최근 관광트렌드가 체험형 콘텐츠로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활자형, 시청형 콘텐츠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만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흥미로운 스토리와 역할 부여를 통해 관광객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은영 대표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직접 시연하며 관광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히 장수군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레드푸드 페스티벌'에서 디지털 보물찾기, QR코드를 활용한 범인찾기 등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형열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혁신적인 관광 콘텐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했다"며 "장수군 100만 관광객 실현을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킬러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도, ‘전북 전담여행사’ 15개사 지정서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전북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선정한 '전북 전담여행사' 15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이 뛰어난 '전북 전담여행사' 1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여행사는 향후 2년간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 문화 체험비, 차량 임차비, 팸투어 운영 실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특히, △전북 관광상품 차별화 및 마케팅 전략 △외래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숙박·교통·체험 콘텐츠 연계방안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 대응 및 판로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만호 기자

삼천생활문화센터, 봄학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내달부터 시작… 인문학 등 다채

삼천생활문화센터(센터장 백정신)는 2025년 새봄,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인문학과 예술 창작, 미술, 공예, 악기, 인문학, 어학,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생활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돼 있다.

인문학 분야는 '엄마들의 수요 인문학'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문 문해력 향상 과정인 '문해력 어디까지?'를 준비해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인문 소양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필수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또한, 어학 분야의 영어 프로그램추역의 파송은 영문학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토리가 있는 영어학습으로 접근하여 쉽고 친근하게 접하는 영어 프로그램이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무주경찰서장, 유공 경찰관에 즉상 수여

박충근 무주경찰서장이 지난 21일 주계파출소에 방문해 사기피의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에게 즉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무주를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결제한 피의자를 검거한 현장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편의점 업주는 도난된 카드로 확인이 되자 즉시 112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주 상대로 인상착의 및 도주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등 면밀한 수색과 상호 공조를 통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번 표창 수여자는 이제 막 현장에 실습을 나온 신입경찰관에게 더욱 주목을 집중시킨다.

주계파출소를 방문한 박충근 서장은 "앞으로도 중요범인 검거 수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즉상을 시행할 예정 이다"라며 "관할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금은방 긴급 방법진단 및 순찰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 상동지구대(대장 김광국)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금은방을 대상으로 최근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한 절도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1일 1회 긴급방법진단에 나섰다.

이번 긴급진단에서는,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최근 손님으로 가장하여 절취 후 도주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 청소년풍, 모자 혹은 마스크 착용 손님은 특히 더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였고 각종 강력범죄 발생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처 방법, 금판매자의 경우 철저한 신원확인도 목록표 작성, 금은방 내 CCTV 정상작동여부·화소·각도·유지보수 필요 여부 등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김광국 지구대장은 "관내 금은방 주변 유동식 거점 순찰과 탄력순찰을 병행해 가시적·위력적 순찰강화를 통한 범죄 발생 분위기 선제적 차단을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경찰서-자율방범대, 금은방 절도 예방 총력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운수파출소는 최근 도내에서 금은방 절도 및 유사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자율방범대(방범대장 김민수)와 협력하여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등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운수파출소는 금은방 및 현금 다액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절도 사례를 알리고, 시설개선 권고 및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임실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야간에는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주간에는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재식 운수파출소장은 "금은방 절도뿐만 아니라, 금귀속을 노린 빈집탈이도 우려됨에 따라 각 마을에 진출하여 지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가 최근 한파로 인해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주요 안전수칙은 △가연성 물질을 보일러 주변에서 멀리 둘 것 △연료를 투입한 후 반드시 투입구 닫기 △보일러 근처에 항상 소화기 비치하기 △재는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처리하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승현 서장은 "화목보일러는 화재에 취약한 만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한 사용으로 남은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